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고의*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에 위치한 TIMES-SLC라는 어학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규모는 작지 않고, 시설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정말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은 일대일수업 3시간과 그룹수업 5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문법, 듣기, 리딩, 스피킹 등 영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골고루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수준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를 통해 한달동안 함께 공부할 그룹이 정해집니다. 수준에 맞게 티쳐들이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부담감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과제를 내주시는데 과제는 수업끝나고 30분 안으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과제들입니다.
Activity	공식적인 Activity로 요트체험, 안바야코브, 고아원봉사활동, UPM견학 등이 있었습니다. 요트체험은 한시간정도 보트를 타고 바다 가운데에 가서 한시간 정도 놀 시간을 줍니다. 구멍조끼를 주면 구멍조끼 입고 놀면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안바야코브 수영장 이용시에는 무조건 수영복을 착용해야하기 때문에 수영복이나 래쉬가드를 꼭 챙겨오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액티비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호텔수영장이나 비치로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수영복을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아원봉사활동은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입니다. 고아원 봉사활동 가기 전에 300페소씩 걷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아원 봉사활동을 가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착하고 예뻐고,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UPM 견학은 어학원이 위치한 수빅에서 버스로 3-4시간을 달려 마닐라로 가야합니다. UP마닐라 대학교에 도착하면 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파트너로 붙여주면 같이 대화도 하고 재밌는 놀이도 하며 친해진 후에 함께 대학교 구경을 합니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생각보다 많이 덥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여름보다는 덜 더웠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건기에 해당하는 계절에 갔기 때문에 비는 많이 안 왔지만 간혹 소나기처럼 잠깐 비가 내리고는 하였습니다.
안전	한달동안 매우 안전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어학원이 위치해있는 지역이 총기소지불가지역이였고, SM몰이라 하버포인트같은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에는 경찰이 가방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없이 한달동안 잘 지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시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명에서 3인실을 사용했지만 3명이 함께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공간은 매우 넓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점호 시에 매니저분께 말씀을 드리면 다음 날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 똑딱 고쳐놓아주고, 이틀에 한번씩 방 청소를 해줍니다. 통금시간이 일~목은 저녁10시였고, 금~토는 12시정각이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0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기타( ) 평일에는 주로 어학원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학원 식당에서 한국음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맛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정말정말정말 맛있었습니다.
교통	어학원 후문에 에프비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이 바로 있어서 방과 후나 주말에 쉽게 시내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한달동안 사용한 돈	약 320,000	
합계	1,055,4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필리핀 날씨는 더운데 수업하는 강의실이 에어컨 때문에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겔옷, 긴팔을 몇 개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에서 신을 슬리퍼를 깜빡하고 못 챙겨가서 불편했는데 잊지말고 꼭 챙겨야할 것 같아요. 선크림도 많이 필요하고, 종합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비상시를 대비한 약들을 챙기면 좋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단기어학연수를 지원할 때 '영어와 친숙해지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눈에 띄 정도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한 달동안 영어를 많이 접하면서 자신감을 잔뜩 얻어오자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하루 8시간동안 티쳐들과 영어로 수업하고 대화하면서 영어실력은 부족해도 어떻게든 내가 하고자하는 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매일 영어로 대답하고 말하다 보니 영어와 친숙해지자는 저의 목표는 달성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클럽



UPM 견학



안바얀비치



그룹수업 후



수빅베이



수빅베이